

농어촌공사, 해외 농업박람회서 K-농기자재 수출 돕는다

올해 5개 해외 농업박람회서 한국관 운영해 농기자재 수출 뒷받침

김춘수 기자(=나주) | 2025.03.04. 10:28:02

한국관 조성과 더불어 전문 통역사, 바이어 매칭 등 다양한 지원 예정

한국농어촌공사는 K-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12일 베트남 원예·농업기술 박람회를 시작으로 해외 농업박람회 다섯 곳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내기업이 해외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4개 기업과 함께 농기계,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비료 등 다양한 농기자재를 선보인 결과, 974건 112백만 불 규모의 수출 상담을 이뤄냈다.



▲ⓒ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기업 28곳과 함께 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어촌공사는 참관객이 1만 5000 명 이상 참관객이 방문하는 '2025년 베트남 원예·농업기술 박람회(Agritechnica asia 2025)'와 2000여 개 이상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농업박람회인 '2025년 중국 국제 농화학·작물보호 박람회(CAC 2025)'에 참가한다.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농기계·농업기술 박람회 ▲독일 농기계 박람회 ▲튀르키예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조성하여 세계 시장에서 케이(K)-농기자재 수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한국관 조성과 더불어, 상담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부스별 전문 통역사, 바이어 매칭, 국가별 최신 시장 분석과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찬희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처장은 "농산업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스마트 기술 도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시장 개척단, 해외 로드쇼 등 케이(K)-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